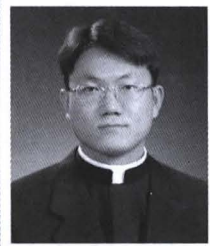


연중 제 15주일(농민 주일) 2007년 7월 15일 (다해)

강론 ...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태신 신부
(사무처장)

뜨거운 여름, 장마가 계속되는 여름, 한낮의 햇볕이 우리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그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빙과류와 에어컨 바람에 의지하고 여름 휴가를 기다립니다. 보양식이

라도 먹으려고 차를 타고 전주를 벗어나면 시원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펼쳐진 들판은 정말 끝이 없이 넓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들판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넓은 들판이 있다니, 쌀이 여기서 다 나오나봐요 하는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하지만 간간히 그 들판 사이로 보이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어깨엔 그 시원한 들판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모를 내기위해 땅을 갈아엎어도, 비가 많이 오면 잠길까 물꼬를 틀 때도, 병충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도, 그리고 수확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한숨뿐인가 봅니다. 이제 어렸을 때의 풍성하고 포근한 고향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에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젊은이의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곧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경제발전이라는 큰 대의명분 속에 많은 이웃을 잃어 갑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고향의 집들은 비어만 가고, 무엇하나 제 꼴을 갖추지 못한, 마치 오늘 복음에서 옷도 벗겨지고, 매를 맞아 아무렇게나 버려진 강도 당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웃을 찾습니다. 아주 멀리 가버린 우리의 고향의 이웃을 찾습니다. 경제발전이라는 강도에게 처참히 맞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우리 농촌의 이웃을 찾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숲머리 생각



이상구(도마)

성녀 막달레나 마리아(1세기)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그녀는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들중의 한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일행의 전 교여행을 수행하며 도왔다.

그녀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성서의 말씀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일곱마귀를 쫓아내신 그 막달레나 마리아이다. (루카 8, 2 참조)

둘째는, 바리사이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서 식사를 하실 때,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씻겨드린 그 막달레나 마리아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녀의 많은 죄는 용서 받았으니, 많은 사랑을 보여준 때문이니...” (루카 7, 47)

셋째는, 거리의 여인이었다가 예수님 덕분에 죽음직전에서 살아난 회심한 그 막달레나 마리아이다.

넷째는, 가장 의미 있게 추정하는 것인데, 마르타와 자매이고 라자로의 누이인 막달레나 마리아이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신다.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지만,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으니 누구도 그 몫을 빼앗을 수 없다.” (루카 10, 41-42 참조)

수난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가 살고 있는 베타니아를 방문하시는데,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발위에 나르드 향유를 붓고 발을 씻어드린다. 이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 향



유는 나의 장례일을 위함이니,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니...” (요한 12, 7-8 참조)

어떤 마리아가 우리가 공경하는 마리아인지 혹은 어떻게 우리가 마리아를 중복해서 알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골고타 산에서 끝까지 성모마리아와 여인 몇 사람과 함께 예수님 임종(臨終)을 지켰고,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만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다.

구원과 사랑을 주신 스승의 무덤을 향해 새벽이슬 위로 달려간 그녀는 사랑하는 분의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울음을 터트린다. 그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환희 가득한 기쁨으로 대답한다. “답보니-선생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붙잡지 말고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전승은 전한다. ‘그녀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의 제자이다.’ 그녀가 증언했다. “나는 주님을 뵈었습니다!”

그녀의 행적에 대하여 혹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도행전이나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도 그 출현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스승의 부활소식을 전한 그녀의 이름은 특별한 영예로 기념 된다. 그녀는 ‘사도들에게로 가는 사도’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오늘 미사 잘 나오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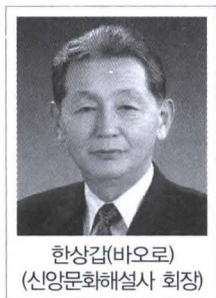
“무이자 무이자” 하더니만 이제는 “내렸어 내렸어” 한다. 살림 사는 거 잘 모르고 주식 투자 따위로 살림 키우기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이 광고 노래 하나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들을 것 같다. 거기다가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노친네들의 쇠소리 나는 광고들도 그렇다. 이런 광고를 들으며 처음에는 연민이 일기도 했지만 이제는 짜증이 나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래저래 사는 게 무척이나 팍팍하게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시골에서 사목하는 어느 사제는 여름철이면 강론을 더 길게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일에 지친 신자들이 강론시간에라도 좀 ‘폭 쉬었으면’ 좋겠다는 배려라고 한다. 머리로 따져보자면 우스꽝스런 소리 같지만 가슴으로 들으면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인가. 사람냄새가 묻어있기에 그럴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 이야기 같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는 더러 있다. 다음 이야기도 그렇다.

개교기념일에는 학교가 신다는 것을 모르고 학교에 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텅 빈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한 당직선생님, “지금부터 받아쓰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럼, 1번 ‘나’, 2번 ‘우리’...” 쉬운 낱말만 골라서 부른 다음, 커다란 동그라미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오늘은 백점 맞았으니까 특별히 일찍 가져라.” 그날 이후 그 한심한 아이는 우등생이 되었다지요.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음, 1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한상갑(바오로)
(신앙문화해설사 회장)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의 전망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우리 교회의 “양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질적 성장에 해당하는 천주교인의 종교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것” 이란다. 이웃 종교들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동안 우리 교회는 오히려 양적 고도 성장을 해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걸 좀 더 쪼개보자면, 우리 교회는 중산층화 되었고, 그러면서 사회정의에는 소극적이 되고 ‘쉬는 신자’ 들만 늘고 말았다는 것이다. 양적인 성장, 무턱대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오늘은 ‘농민주일’ 인데 자꾸만 ‘한·미 FTA’며 ‘유전자조작 농산물’ 따위가 떠올라 씁쓸하다. 그래도 미사 때마다 “오늘 미사 잘 나오셨고...”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제들이 있어서 활력을 받는다.

입당송 시편 17(16),15

저는 의로움으로 주님 얼굴을 뵈오리다. 깨어나 당신을 보고 흡족하리이다.

제1독서 신명 30,10-14

회답송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 그리고 37
(◎ 33 참조)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 기운 차려라.

제2독서 콜로 1,15-20

복음 환호송 요한 6,63ㄷ,68ㄷ 참조

◎ 알렐루야.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루카 10,25-37

영성체송 시편 84(83),4-5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동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치나이다.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2차 피정**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40여 명의 2차 피정이 지난 7월 2일(월)~4일(수)까지 사무처장 윤양호 신부의 지도로 나바위 피정의 집에서 실시되었다.

하느님 안에서 영육간 함께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지향하며 실시된 이번 피정에서 기도방법에 대한 기도수련 강의와 면담성사, 폐제 묵상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묵상시간과 성체조배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의 내용 중 성녀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새롭게 확인하고, 각자의 삶속에서 만나게 되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피정일정을 모두 마쳤다.

송향순 기자

에 따라 걷는 순례의 길이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제시하는 길이다.”라는 요지의 강의를 하였다. 이어지는 ‘계약과 계명’, ‘구원의 역사’, ‘하느님 나라’ 등의 주제를 쉽고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강의하여 본당 신자는 물론 강의를 듣고자 온 타 본당 신자들 약 200명에게 많은 호평을 얻었다. 그리고 “거룩한 독서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연결시켜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말씀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를 권고하였다. 이번 강의에 참석했던 한 형제는 “그동안의 신앙생활 중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한 순간에 해소가 되었다.”며 거룩한 독서를 이웃과 함께 실천해 보기를 다짐하기도 했다.

조은아 기자

● **신태인 성당 어른신 캠프**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지난 7월 3일(화)부터 7월 5일(목)까지 3일간 어른신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다. 고창 선운산 유스 호스텔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어른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련한 이 캠프는 올해로 세 번째로 65세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는데 97명이 참가했다. 3일 오전 9시 성당에서 조별로 명찰

● **송학동 성당 '성경의 맥과 거룩한 독서' 강의**

송학동 성당(주임=박인근 신부)은 지난 7월 3일(화)~6일(금) 오후 8시, 8일(주일) 교중미사 후 네 차례에 걸친 정태현 신부(광주가톨릭대학)의 '성경의 맥과 거룩한 독서'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강의 중 정신부는 “인간의 길에는 방향, 안주, 순례 등 세 가지 길이 있으며, 하느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느님의 뜻

<p>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학종로약국</p> <p>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중옥(크리스티나)</p> <p>전북대학병원 제2차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p>	<p>젬인아트</p> <p>전진아 (실비아)</p> <p>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p> <p>☎(063)462-7777 / 018-648-7777</p>	<p>가톨릭학생들을 위한 뉴질랜드 현지학교 체험</p> <p>가격 : 275만원(항공권 별도) 기간 : 7월 28일~8월 25일까지 대상 : 초,중,고생 주최 : EDUCARE, MARK 신부님 문의 : 은이삭(이사악) 011-9476-2421 WWW.EDUCARE-si.net</p>	<p>AIG 생명보험</p> <p>믿고 신뢰하시면 최선의 보답을 해드립니다.</p> <p>이완기(빈첸시오) ☎ 상담 : 019-9770-2468 212-9339</p>
<p>호성냉동</p> <p>·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켓텐 · 버섯재배 설치</p> <p>양태수(요양) · 김경남(마리아)</p> <p>☎(063)242-4959 H·P 011-659-8085</p>	<p>치질 · 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향원외과</p> <p>평화동 시거리-중간-한국통신 시거리</p> <p>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p> <p>☎ 228-6002~3</p>	<p>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 양방 협진) 익산호요양병원</p> <p>저렴한 요양비로 어른신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p>	<p>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p> <p>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p> <p>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p>

을 달아 드리고 캠프 봉헌식을 가졌다. 부활초와 성경, 십자가 봉헌 후 케이크 자르기로 봉헌식을 마치고 선운산으로 출발했다. 짐을 풀고난 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건강 교실, 노래교실, 예술단 공연, 창작 체험과 음악감상, 웃음요가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의 표정은 밝고 행복해 보였다. 미사와 성수 예절로 영적 체험도 했다. 3일 동안 같이 생활 하면서 처음 참가한 분들 과도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졸업 사진 찍기로 선운산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당으로 돌아와 미사와 폐막식, 캠프 영상 보기로 모든 일정을 끝마쳤다.

이선숙 기자

● 지곡동 성당 바오로 성서대학 종강 파티

지난 7월 5일(목) 지곡동 성당(주임=김병운 신부)에서 바오로 성서대학의 1학기 강의를 마쳤다.

주임신부님의 특강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였고 조촐하게 신부님 영명축하를 겸한 종강파티를 열었다. 성서대학생들이 다함께 영명 축일축하노래를 불러드렸고 축하 빵을 나누고 이어서 다과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무엇보다도 신부님의 반주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는 모습은 모두를 흐뭇하게 했다.

이미원 기자

▶ ‘쌍백합’ 정기구독자와 후원자를 모십니다 ◀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쌍백합’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쌍백합’과 함께 참다운 삶과 신앙의 길을 걸을 정기 구독자와 후원자를 모십니다. ‘쌍백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

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사랑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쌍백합

정기구독신청
전주교구청 홍보국
문의 : (063) 285-0041

후원 계좌번호: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유지재단

후원해 주신 한상갑(바오로)형제님 10만원 감사드립니다.

★ 쌍백합 전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홍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강성호 피부과</p> <p>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p> <p style="text-align: center;">☎(063)255-8700</p> <p style="text-align: center;">롯데백화점 옆</p>	<p style="text-align: center;">유* 사랑 외과</p> <p style="text-align: center;">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p> <p style="text-align: center;">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p>	<p style="text-align: center;">젊은이들을 위한 꽃등대 성령 피정</p> <p>일시 : 8월 17일(금) 오후 2시~19일(주일) 오후 4시</p> <p>주제 : 성령을 받아라!</p> <p>대상 : 1)성령기도회에 관심 있는 젊은이 2)중등부</p> <p>회비 : 일반원(어린이 동반금지)</p> <p>문의 : 011-490-5345</p>	<p style="text-align: center;">국내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p> <p style="text-align: center;">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운영 신생아 및 연장아동 입양상담</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 : 032-875-3240</p> <p style="text-align: center;">www.hschild.or.kr</p>
<p style="text-align: center;">성지순례</p> <p>128차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바티칸</p> <p>2007년 8월 22일~9월 1일(10박 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메일 미사드립니다.</p> <p>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 063-288-6666</p>	<p style="text-align: center;">마리아 남자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성소 모집</p> <p>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자</p> <p>담당 : 김일영(프란치스코) 신부</p> <p>문의 : 080-749-8547</p>	<p style="text-align: center;">2007청년 슈발리에 축제</p> <p>주제 : 한처음에...나의 마음(대상 : 청년 남녀)</p> <p>일시 : 8월 10일(금) 오후 4시~12일(주일)</p> <p>장소 :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부산 본원</p> <p>회비 : 35,000원(선착순 60명)</p> <p>문의 : 051-581-3104~5, 011-9330-3104</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p> <p>일시 : 7월 22일(주일) 오후 2시~5시</p> <p>장소 : 광주 가톨릭 센터</p> <p>비고 : 내일의 선교사를 초대합니다.</p> <p>문의 : 010-6269-1711</p> <p style="text-align: center;">kmsvocation@daum.net</p>



교구장 일정

- 마닐라 사목 방문, 견진, 피정
7월 23일(월) 까지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 사회복지위원회 사랑의 다리
익산 월례미사
7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영등 소라
- 사제 아버지회
7월 16일(월) 오전 11시 초남이 성지
- 전국 홍보국장 회의
7월 18일(수) 오전 11시 C.C.K
- 환경 영화상영과 환경 미사
7월 18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제목 : 불편한 진실(미 부통령 엘 고어 제작)
미사 : 오후 4시
후원 : 전주교구 홍보국
- M.E 116차 주말
7월 20일(금)~22일(주일) 천호
- 전국 성소국장 회의
7월 20일(금) 오후 2시 C.C.K
- 중, 고등부 음악캠프
7월 21일(토)~23일(월) 해월리
- 교구 기자단 모임
7월 21일(토) 오후 5시 센터

- 고 3, 대학생, 일반 예신 월모임
7월 22일(주일) 오전 10시 성소국
- 2007년도 가정성화를 위한 가족주말
8월 3일(금) 오후 7시~5일(주일) 오후 6시
주제 :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족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족 주말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 : 340,000원(4인 기준)
신청마감 : 7월 20일(금)
접수 및 문의 : 전복은행
505-13-0312074(천주교 유지재단)
신청서 : 본당 사무실, 사목국 홈페이지
www.jjsamok.com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방문
해 주세요.

- 동전주 하나회 미사
7월 22일(주일) 오후 2시 우아동
- 남성 제82차 꾸르실로
8월 9일(목)~12일(주일)
신청마감 : 7월 19일(목)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교육
7월 16일(월) 요촌

기타

- 남중기 신부 새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동 136번지
해군 중앙성당
Tel : 02-844-2439
- 2007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7월 30일(월)~8월 3일(토) 오전 10시~12시
대상 : 중 · 고등학교 청소년 15명
선착순 모집
내용 : 자원봉사기초교육, 경로당 순회
봉사활동, 사회복지프로그램 보조
접수기간 : 7월 20일 마감
- 2007 신나는 꾸러기 여름캠프
일시 : 8월 9일(목)~10일(금) 1박 2일
장소 : 소양 송광훈련장
대상 : 초등학교 1학년~3학년 40명
선착순 모집
내용 : 서바이벌게임, 수영, 모듬활동,
캠프화이어
참가비 : 1인당 2만원
(숙박비, 식비, 간식비 포함)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여벌 옷
- 여름방학 꽃우물방과후 교실 이용안내
대상 : 초등학교 1학년
일시 : 매주 월~금(오전 10시 30분~16시)
이용료 : 5만원(중식, 간식 제공)
내용 : 장구, 구연동화, 원예, 미술,
NIE, 과학, 요가, 수학, 한문, 영어,
독서, 체험학습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7월 7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라,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조촌동, 여산, 서학동, 순창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평, 중앙, 나운2동, 수류, 원평, 숲정이, 나운동, 여산, 고산, 신태인, 용안, 신동, 서신동, 시기동, 월명동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우림, 무주, 영등동, 인후동, 우전, 덕진, 임실, 복자, 오룡동, 함열, 삼천동, 노송동, 팔마, 금마, 솔내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소룡동, 봉동, 주현동, 효자동, 요촌, 부안, 송천동, 호성동, 용진, 연지동, 미룡동, 부송동, 지곡, 도룡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화산동, 송학동, 아중, 모현동

단위: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11,878,569	79.19%
사제단	1,000,000	1,343,675	134.37%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1,500,000	800,923	53.39%
수익사업	500,000	232,824	46.56%
합계	18,000,000	14,255,991	79.20%

수도자와 함께하는
젊은이 성령세미나
일시 : 7월 27일(금) 15시~29일
(주일) 17시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본원
문의 : 055-351-2285
오순절평화의수녀회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기장

- 금주 구약성경 쓰기: 지해서 15장~18장 25절
- 여름신앙학교 초등부: 7월 27일(금)~29일(주일) 도통동 성당
- 중고등부 봉사 캠프: 7월 24일(화)~26일(목) 해월리 피정의 집/후원금 접수(사무실)
- 1. 오늘: 대건회, 안나회, 아가페회 모임(교중미사 후)
- 2. 금주 ① 여름신앙학교를 위한 9일기도 시작/소공동체 미사 축하 아파트만 18일(수)
 - ② 전례분과 모임 19일(목) ③ 제대회 20일(금) 미사 후
 - ④ 초중고 교리교사 후원의 밤 21일(토) 후 7:30
- 3. 감사헌금: 익명 5만
- 4. 성전 신축헌금: 이경옥 80만, 이재선 70만
- 5. 차주 ① 주일학교를 위한 2차 헌금 ② 모니카회
 - 지난주 봉헌금: 1,038,100원 ■ 교무금: 1,000,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원태

- 성서읽기: 7월 셋째주간-이사야22장~28장
- 초중고 여름신앙학교(7월14~15일) 준비에 수고하신 주일학교 선생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구천동관광객 미사: 7월21일(토)~8월19일(일)
- 성당청소: 7월21일(토)-온교, 축산반
- 1. 모임 ① 꾸리아-교중미사 후 ② 테레사회-7월17일(화) 후8시
- 2. 금주전례: 해설-오승자, 독서-최승용, 합은화, 봉헌-김태수 부부
- 3. 차주전례: 해설-백희옥, 독서-백천웅, 권순자, 봉헌-황점수, 유계남
 - 지난주 봉헌금: 614,900원 ■ 교무금: 1,042,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호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윤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본당 오르간 구입-은인을 구합니다.
- 사목회 임원 및 단체장 단합대회-17(화)
-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25(수)~27(금)
 - ※ 많은 기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 1. 금주모임 ① 요셉회, 대건회, 테레사회-미사 후
 - ② 성모회-18일(수) 미사 후
- 2. 차주모임: 꾸리아-미사 후
- 3. 청소년: 금주-가난한 이들의 모후, 차주-예언자들의 모후
- 4. 차량봉사: 장경호, 유영선, 차주-이기주, 임재원
 - 지난주 봉헌금: 913,930원 ■ 교무금: 2,235,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필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창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 37).
- 1. 초중고 여름신앙학교: 7월25일(수)~29일(일) - 많은 기도바랍니다.
- 2. 예비신자 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 한명씩 인도합니다.
- 3.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724,480단
- 4. 센터 신축헌금: 신임액-160,575,000원, 납임액-132,962,000원
 - ※ 센터 신축헌금 완납자(동충): 오상선 90만, 안명옥 24만, 이정기 24만, 이상현 100만, 이계출 10만, 이규량 12만, 이기남 12만, 이선용 36만, 이영자 36만, 이정태 42만, 이재옥 150만, 임형수 105만, 심광자 30만, 정은덕 25만
- 5. 감사헌금: 재석희 5만, 김현숙 5만, 익명 2만5천, 형계순 5만, 서봉남 3만
 - 지난주 봉헌금: 1,953,200원 ■ 교무금: 2,731,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신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구동수
멘델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중고등부: 24일~25일, 초등캠프: 27일~28일
 - ※ 참가비: 만원, 신청: 사무실(마감 오늘까지)
- 1. 금주 ① 16일(월) 전10시 천반산 산행, 어른동미사
 - ② 17일(화) 9:30분 혼인강좌, 10:30분 고해성사, 11시 혼인식, 저녁미사는 없음
 - ③ 20일(금) 유치원방학
 - ④ 21일(토) 미사30분전 어린이세례자 첫고해, 미사 후 만나회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시광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홍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207,759단
2. 성서를 통독 합니다.
3. 병자봉성체 신청 바랍니다.
4. 금주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박태규, 김양래
5. 차량봉사: 김진태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 차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이종관, 이진영
7. 차량봉사: 변홍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중홍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노재진

1. 공소미사 ① 삼길-15일(일) 후6시 ② 성수-18일(수) 후7시
 - ③ 신전-22일(일) 후7시
2. 초중고 여름캠프: 24일(화)~27일(금) ※ 교우님들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3. 청소년 캠프를 위해 협조해 주신 분들: 임옥주, 오복덕, 차오순, 최봉규, 백인주, 김만수, 신대근, 전막동, 이옥선, 마오로희, 가리점구역 일동
4. 감사헌금: 김청근 5만원, 배계순 3만원, 강상윤 3만원, 조진규 2만원, 이명남 5만원, 익명 200만원, 이모니카 10만원
5. 50주년 기념: 정옥만(베드로) 3만원 ※ 누계: 68,714,131원
6. 모임: 구역모임 ① 18일(수)-관촌1, 2, 3
 - ② 20일(금)-관촌 4, 5, 구역장 회의: 차주미사 후(분도관)
7. 청소년 구역 ① 오늘-덕지, 가리점 ② 20일(금)-임실1, 3
 - ③ 22일(일)-성수
8. 차주전례 ① 해설-이원섭 ② 독서-이태현 부부 ③ 봉헌-강상윤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32,000원 ■ 교무금: 919,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임기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상화

-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 1. 오늘은 농민주일입니다.
- 2. 예비신자모집: 6월 24일~7월 22일
- 3. 첫영성체 교리: 7월 25일(수)~8월 3일(목) 매주 화, 수, 목, 금
- 4. 여름신앙학교: 초등부-7월 21일(토), 23일(월), 24일(화)
- 5. 금주모임: 애령회(19일/목)
- 6. 사목회 및 제단체 친목아우회: 27일(금)
- 7. 전례봉사: 안옥선, 김지탁, 정미영, 김성빈, 심현천
 - 지난주 봉헌금: 633,000원 ■ 교무금: 670,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동표

- 놀이가 있는 신앙학교 ① 장소: 용인 에버랜드
 - ※ 일시: 7월30일(월) 06시미사후 출발
 - ※ 대상: 초중고 40명(회비25,000원)
- 저녁미사 시간변경: 후7시30 -> 후8시
 1. 금주참석공소: 수분, 차주-상, 하동
 2. 차주공소미사: 상동, 차주-범암
 3. 금주전례: 김원순, 차주-양요섭
 4. 금주독서: 장양섭, 이진수, 차주-이범수, 김복순
 5. 금주봉헌: 이승하, 이옥주, 차주-이기준, 박연심
 6. 차량봉사: 금주-김철수, 차주-이지수
 - 지난주 봉헌금: 436,300원 ■ 교무금: 370,000원

2. 차주 ① 22일(일) 주일학교를 위한 2차헌금, 대건회
 - ② 24일(화) 전10시 성모회, 중고캠프(25일까지)
 - ③ 25일(수) 성야고보사도축일
 - ④ 27일(금)~28일까지 초등부 여름캠프
3. 29일(일) 부귀미사 후 부귀 병자영성체: 사무실 신청
 - 지난주 봉헌금: 1,085,000원 ■ 교무금: 2,495,000원

“우리 농촌을 살리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12회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과 이를 함께 걱정하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1994년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시작하고, 1995년 농민 주일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래,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촌과 농민들의 상황을 특별히 주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들의 아픔과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절망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들이 앞으로 입게 될 피해를 감안해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농촌 공동체는 급격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되어 2006년 12월 1일 기준 전 인구의 6.8%인 330만 4천 명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나마 60대 농가 경영주가 59%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농산물 수입 개방 정책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그 소중함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민들이 “쌀은 민족의 생명이며 나라의 주권”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벼농사가 단순히 경제적 재화로서의 쌀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를 만들어 내며, 홍수를 방지하고, 토양의 유실을 막으며, 기후를 조절하는 등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공익적인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모든 문화가 벼농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쌀은 우리 민족의 혼으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농민들의 외침에도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계화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소의 없는 세계화’ (요한 바오로 2세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998. 제3항)와 ‘인류의 참된 선에 초점을 두는 세계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2006년 사순 시기 담화)를 촉구하고,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정의를 위한 연대와 평화를 권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상기하며 우리는 지난 1994년 이래로 실천해온 도농공동체운동인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격려를 보내며, 이 운동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창조 질서를 보전할 수 있는 생명의 농사법을 개발하고 보급할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형제자매들을 가족적인 연대로 일치시켜 줍니다. 도시와 농촌이 정성껏 가꾼 곡식을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자연과 우리 농촌을 살리는 것이며 생명의 농산물을 매개로 하여 하느님의 생명과 은총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촌의 마을 공동체와 도시의 본당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 학교와 단체와 기관과 병원에서도 이 운동에 활발히 동참하여 생명 농산물을 나누며, 동시에 생명·공동체 운동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실천 방식들을 개발해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농사일을 통하여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도시의 많은 교우 여러분의 노력이야말로 생명이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진정한 신앙고백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촌을 살리려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우리의 농촌이 하느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을 공동체의 따뜻함과 더불어 길이 보전되기를 기도합니다.

2007년 7월 15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기 산 주교